

2023 05
제220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02 좋은 글, 좋은 시

03 [특집] 2023 대덕물빛축제 그리고 대덕구의 관광산업

05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06 [가정의 달 특집] 지면으로 전하는 카네이션

07 잊혀가는 대덕의 수물마을을 찾아서

08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석봉동 새여울리더스클럽

09 열린 의정

11 책책책! 책을 소개합니다

12 대덕톡톡

아버지

박순애(시인, 대덕문화회 회원)

지붕에 하얀 눈이 쌓이면
가끔 먼 산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생각난다

막걸리 한 사발로 갈증을 달래시며
손바닥에 굳은살 박여도 삼자루 놓지 않고
손등에 피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장마철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물꼬를 트고
태풍에 쓰러진 나락*을 세울 때에는
몰아쉬는 한숨에 도랑까지 깊어갔다

바쁜 아버지의 손놀림은 추수를 끝낸 후
초가지붕을 새로 단장하고 나서야 느려졌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고
눈송이는 나뭇가지 끝에서
쌓였다 떨어지고 또 쌓기를 반복한다

나는 머리카락이 희끗해지면서
마음 식이는 방법을 알아갔고
아버지의 그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다

* 나락: 벼 이삭의 사투리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 : 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3년 5월 8일(제220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2023 대덕물빛축제 그리고 대덕구의 관광산업

대덕구의 대표축제 '2023 대덕물빛축제'가 지난 7일 폐막식을 끝으로 3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23 대덕물빛축제'는 새로운 발상과 기획, 다양한 내용으로 내실 있고 독창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벤트형 축제와는 성격이 다른 관광주도형 축제로 대덕관광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편집자는 최충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이번 축제이야기, 향후 '대덕물빛축제'의 방향, 그리고 이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2023 대덕물빛축제'는 대덕구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구상과 기획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축제를 준비한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

저는 대덕에서 태어나 대덕에서 살며, 대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 대덕의 발전은 도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교육여건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덕구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같은 국가적 이슈를 우리 대덕구도 피해 갈 수 없다. 현재 우리 대덕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의 육성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 숙박, 관광지 개발 등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도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관광주도형 축제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기획된 것이 '2023 대덕물빛축제'이다.

Q '2023 대덕물빛축제'의 주제가 '대청호 고래품다'이다. 고래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 주제에 대한 기획안을 소개한다면?

대청호로 둘러싸인 대덕구 이현동 일대의 옛 지명이 '고래골'이다. 지금도 신탄진 인근에서는 '고래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다. 이현동에는 옛 지명과 관련한 구전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바로 여수바위에 얹힌 고래설화이다.

이를 모티브로 축제의 주제를 '고래'로 설정했으며, 구전설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 '고래'라는 주제에 '자유로운 희망'과 '용기 있는 도전'을 표현해 대덕이 나아가야 할 대덕발전의 희망과 도전을 콘텐츠로 표방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Q '2023 대덕물빛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 소개한다면?

2023 대덕물빛축제는 대덕과 대전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슈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대표적으로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의 전국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 정상급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이틀간 2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400여대의 '드론쇼'를 선보였다. 관광객은 물론, 우리 대덕구민들께서 많이 호응해주셔서 기쁨을 느낀다.

특히, 31일간의 축제기간이 가장 돋보이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보편적인 지역축제는 짧게는 2~3일이거나 길어도 1주일 내외일 것이다. 이 기간동안 미디어파사드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축제 기간동안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우리 대덕구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기획 의도대로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담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도 많았다. 전국 지역축제에서는 처음으로 페스티벌송 '으랏차차대덕'을 발표했으며, 주제를 스토리텔링한 동화책을 발간했다. 주제곡과 동화책을 통해 '2023 대덕물빛축제'가 지역축제의 한계를 넘어 대덕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밖에 다양한 홍보물과 굿즈를 개발해 선보였으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Q 기대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가 있다. 방문객은 어느 정도였나?

2023 대덕물빛축제가 진행된 31일간 추정 방문객이 60만명이다. 이는 대전에서는 지난 1993년 열린 엑스포 행사 이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우리 대덕구민이 17만 4000명인데, 대덕구 인구의 3배 이상이 한 달간 몰려든 것이다. 유동 인구 즉, 생활인구 증가는 대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Q 대덕물빛축제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은?

형식도 새롭고 내용도 색다른 축제를 처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잘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준비하고 기획할 예정이다. 한 번 성공했다고 그대로 답습한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매년 새롭게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더 새롭고 다양성을 갖춘 '대덕물빛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향후 2~3회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이슈화와 관심 유발을 통해 대덕구와 대덕물빛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Q '대덕물빛축제'가 관광주도형 프로모션이었다고 말씀해주셨다.

대덕구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덕구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대청호와 계족산이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의 유무는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선물과 같은 존재이고, 지속성과 확장성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청호와 계족산이 대덕관광의 핵심으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관광산업이 명승고적이거나 자연경관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청호 등 대덕의 주요 관광지의 방문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관광수요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즉, 스쳐 가는 방문으로는 대덕구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민선8기 대덕구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족산시민공원 프로젝트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는 바로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대전시 공약사업이기도 한 계족산시민공원 프로젝트는 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계족산 초입부인 장동문화공원부터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또,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시설물,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이 반영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마친 데 이어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2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대청호와 계족산이 명품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산업의 육성은 특정한 이유와 전략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총체적인 대덕구의 역량이 결집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야 재미있는 관광도시 대덕을,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맛도 가격도 다 잡은 분식집 **순이네분식카페**

- 대전 대덕구 대오길 29(대화동 35-120) 042-627-2778
- 야채김밥 2500원 / 치즈김밥 3500원 / 참치김밥 3500원
멸추김밥 3500원 / 불고기김밥 4500원 / 쫄면 5500원
- 월~금 07:30~20:00 / 토 07:30~16:00
(매주 일요일 휴무) 포장·예약·단체 주문 가능



편집자에게 ‘김밥’은 추억이다. 맛있는 김밥을 먹으면 현장체험학습, 소풍 전날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던 엄마, 놀이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모습 등이 떠오른다. 최근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순이네분식카페(대표 임순희) 김밥을 먹었을 때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순이네분식카페는 골목에 숨겨져 있고 식사 테이블도 한 두개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 대표 메뉴도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른 6개 종류의 김밥과



쫄면으로 단출하다. 하지만 옆구리가 터질듯한 크기에 재료가 실한 김밥을 보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순이네 김밥에는 시금치, 당근, 단무지, 톳 등 무려 7가지 재료가 들어간다. 2~3장씩 들어간 계란지단에 온갖 신선한 채소가 워낙 뽕뽕하게 담겨 있어 한입에 다 넣기가 힘들 정도다. 이른바 ‘빅사이즈’ 김밥으로 가격도 착하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김밥이 5000원으로 올랐는데 야채김밥 2500원, 치즈김밥 3500원, 베이컨샐러드김밥 4500원이며, 쫄면도 5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곳의 또 하나의 대표메뉴는 쫄면이다.



새콤달콤한 중독성 있는 양념장에 쫄면의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발과 아삭하게 씹히는 신선한 야채들은 식감과 맛, 든든함을 모두 갖췄다. 이전에도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 대표는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자녀들이 사는 대화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곳에 터를 잡은 지 8년째라고 한다. 가게 운영이 고되지 않냐 묻는 필자의 질문에 임 대표는 “건강관리 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하고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요.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을 위해 변함없이 김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뜨듯한 칼국수에 정성과 마음을 담다 **일월칼국수**

- 대덕구 대화로 33(대화동 37-17)(골목 내 위치) 042-621-9232
- 얼큰이칼국수 7,000원 / 바지락칼국수 7,000원
두부두루치기 10,000원 / 미니족발 14,000원
- 영업시간 10:00~21:00 (매주 일요일 휴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막상 집에서 해 먹기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칼국수. 비가 오는 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생각나 대화동 일월칼국수(대표 정윤심)를 찾았다.

일월칼국수의 대표 메뉴는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바지락칼국수와 썩갠 향이 풍부한 얼큰이칼국수다. 또, 매콤달콤한 두부두루치기, 매일 직접 삶아 내놓는 미니족발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다. 정 대표는 멸치를 우려낸 기본 육수에 오직 바지락만을 사용한다고 한다.



동죽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재료지만 맑고 깊은 제대로 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칼국수는 쫄깃하고 탄력 있는 면발로도 인기다. 칼국수 면도 정 대표가 매일 아침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 숙성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칼국수집을 개업했다는 정 대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어 찾아와 주시는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며 “먹고 나서 ‘기분 좋다’는 말 한마디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라고 말했다. ‘대덕구일천원이웃사랑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정 대표는 대화동 주민자치회로부터 ‘제6회 친절인상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은 물론 지난 2019년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칼국수 나눔 행사도 펼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대표에게 칼국수는 어떤 의미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칼국수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쫄깃한 면발과 뜨거운 국물로 위로를 건네는 음식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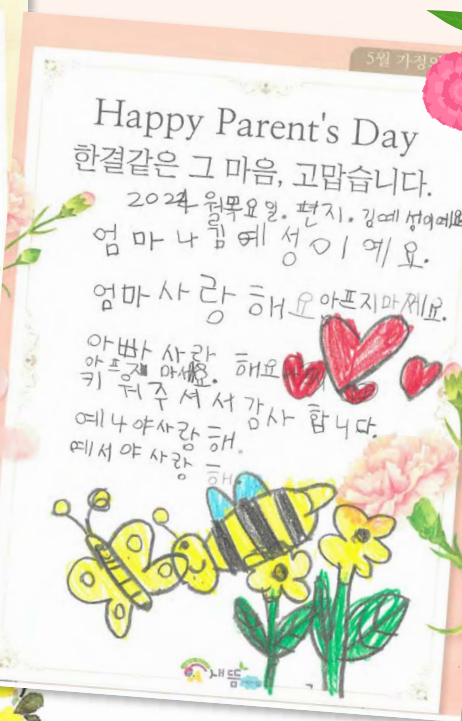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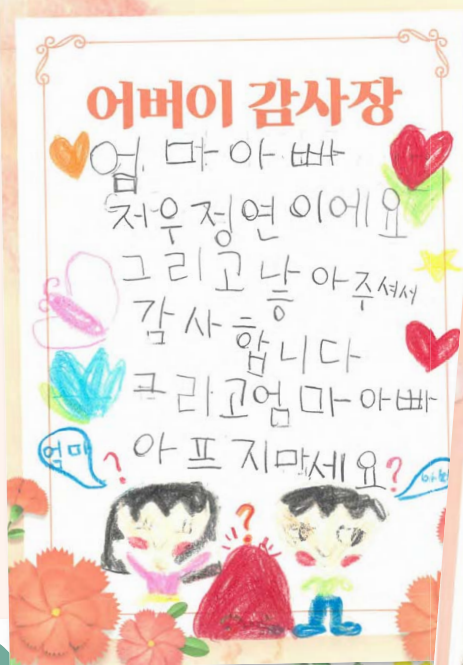
지면으로 전하는 카네이션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세계 가정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5월은 가족을 위한 날이 많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부모님 또는 자녀, 아내,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말로 “감사합니다. 사합니다”라고 전달한다면 매우 좋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손편지 혹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마음을 글로 옮겨 표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대덕라이프’ 5월호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전 세대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어린 자녀에게 쓴 편지를 지면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최충규 대덕구청장

엄마! 울 엄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어머니보다 엄마라고 부르는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부르면 부를수록 제 가슴이 뭉클하고
시려웁니다.
어머니는 그 모진 고생속에서도 아프다 소리 못하지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장군처럼
의연하셨습니다. 하늘만큼 넓고 봄햇살처럼 따스한
치마폭을 한결같이 내어 주신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은 제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무수한 역경속에서도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납니다.
당신의 염려와 기도, 정성으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늘 받기만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앞으로는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당아 17만 대덕구민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드리지 못해도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될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5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장규 울림.



To. 항상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빠께.

아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아빠 저는 어릴 때 아빠와의 추억이 매우 생생해요.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정말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정말
그 시절이 잊그제 같아요. 비록 지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조금 먼 곳에서 일하고
계셔서 주말밖에 못 만나지만 마음만은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크면서 대화하는 횟수도 줄고 가끔 짜증과 투정을 부려서 죄송한 마음이
커요. 아빠는 항상 제 편이라고 생각해서 아빠의 속상한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제가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나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니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실망하게 해드리는 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의 큰 사랑과 헌신 앞에 부족한 점이 많은 딸이지만 나중에 자라면 아빠의
버팀목이 되어서 아빠가 저를 자랑스러운 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에게 미소 지으며 잘 반겨주시는 아빠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둘도 없는 딸 정옥울림

이정옥 2023 대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기자

사랑하는 부모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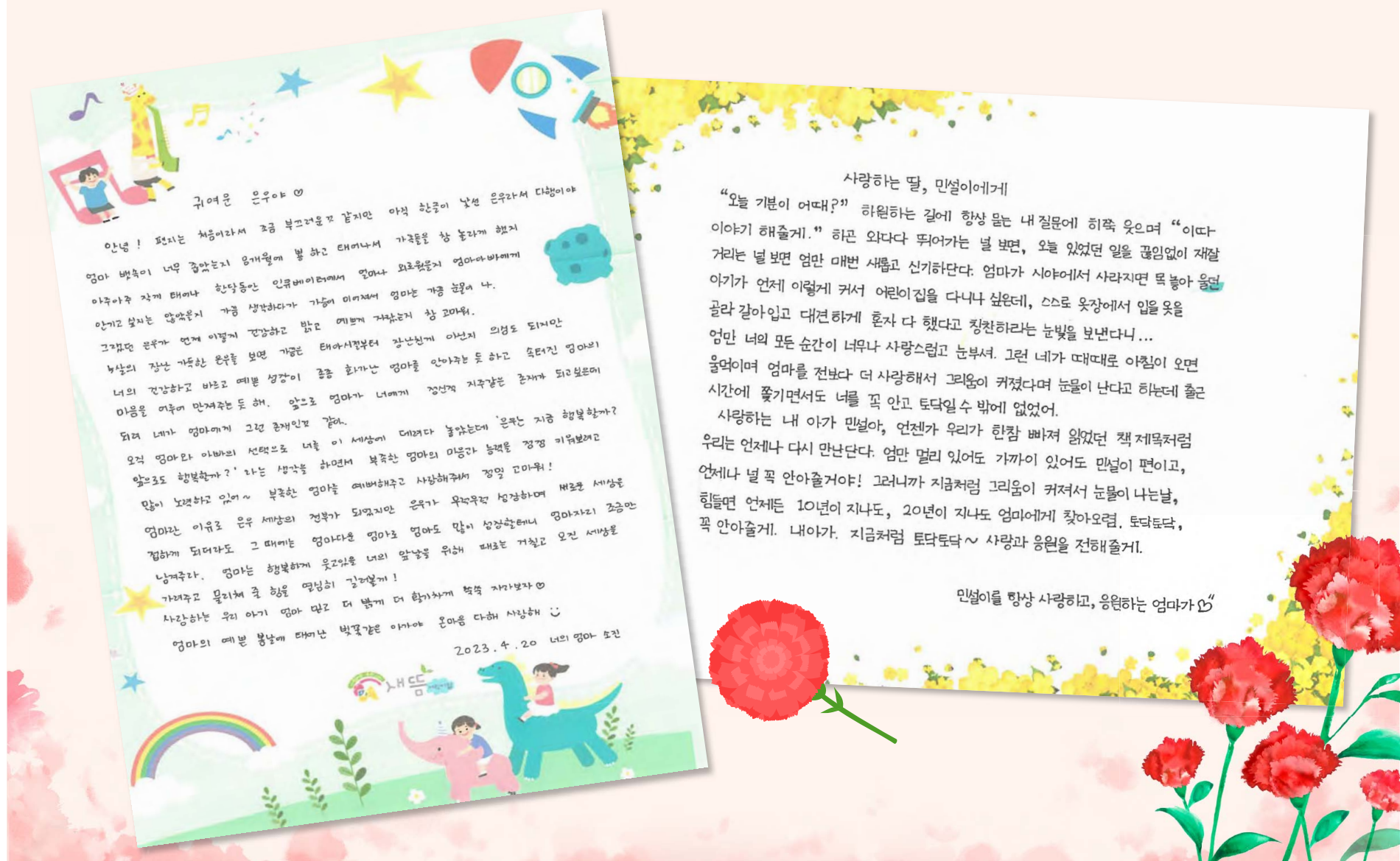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벌써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잘 위해 희생해주시는 부모님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17년동안
아낌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늘 지지해 주시고 가끔씩 따끔하게 혼내주시면서 바른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워도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존경스러워요.
아빠, 늘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이자 아빠, 또
최강 울트라 슈퍼맨이예요. 엄마, 온몸과 마음을 저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요. 엄마
덕분에 걱정 없고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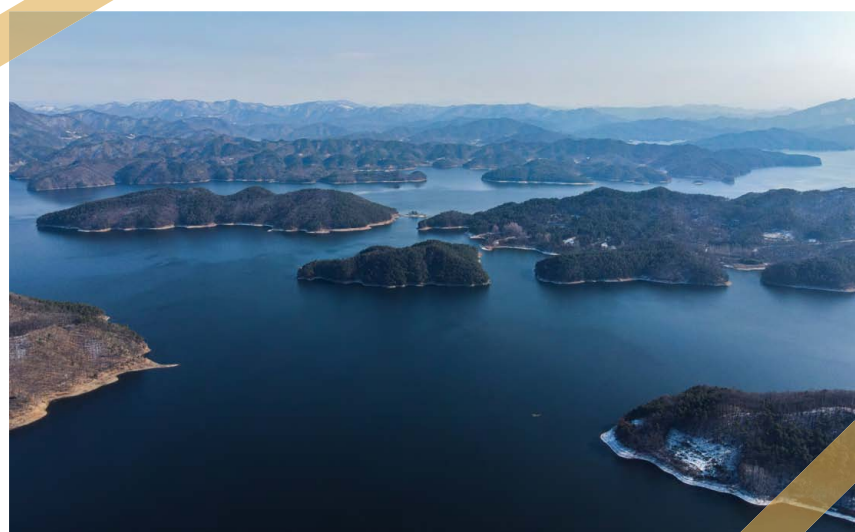
저를 위해 노력하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커서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기
너무너무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부모님이 건강해야 제가 행복해요.
꼭 건강하셔야 해요. 부모님, 열심히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저의
전부예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막둥이 예림이가

송예림 2023 대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기자



잊혀가는 대덕의 수물마을을 찾아서



대전 대덕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대청호. 지난 1980년 12월 완공된 대청호는 소양호, 충주호 다음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이다. 넉넉한 생활용수 공급과 편안한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대청호의 이면에는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버린 아픔도 공존한다. 대덕구에서 수몰된 마을은 갈전·미호·부수·삼정·이현·황호동 등 총 6개 마을이다. '대덕라이프'는 대덕문화원에서 2022년 5~12월 진행한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 기억 속 잊혀가는 6개 마을의 발자취를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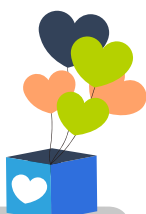
📍 갈대밭이 많은 갈전리, 갈전동

갈전동은 신탄진동에 소속된 법정동이다. 동쪽으로는 대청호, 남쪽은 이현동, 서쪽은 용호동, 북쪽은 삼정동과 접해 있다. 옛날에 갈대밭이 많아서 갈밭 또는 갈전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수몰 이전에는 갈전1구 약 50호, 갈전2구 약 30호 등 80호가 사는 비교적 큰 마을이었다. 대청댐 완공 이후로 대부분 물에 잠겼으며, 현재 18호만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와 살고 있다. 대덕문화원 구술채록집의 내용에 따르면 고대열 구술자는 1967년생으로 수몰된 갈전하리에서 나고 자랐으며, 수몰민 2세대에 해당한다. 그는 보릿고개 때가 되면 쌀 있는 사람이 그거를 꺾주고, 그 쌀을 낀 사람은 꺾 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히 들려줬다. 수몰 후 아산으로 이주해 그곳에 정착해 살다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대전에 돌아왔다는 그는 "실향민은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애절하다"라고 소회했다. 1950년 갈전1리에서 태어났다는 고동대 구술자는 1970년부터 충남 홍성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0년 대덕구 공무원으로 퇴직했다. 현재 고향 마을 옆 삼정동으로 귀농해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그는 부모님도 수몰 이주민이었지만, 수몰 이주민 철거에 나선 해당 관청 공무원이라는 기가 막힌 인연에 대해 털어냈다. 대청댐이 착공된 1975년 당시 해당 관청인 충남 대덕군 동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고동대씨는 동면의 수몰민 이주 과정을 진행했다고 한다. 고씨는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포클레인 앞에서 누워서 몸부림을 치는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다행히 저는 고향 옆 동네로 이사와 사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다들 마찬가지로 고향은 바로 어머니 품"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문헌 : 대덕문화원,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결과집 · 스토리북

35년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돌보다

새여울리더스클럽



대전 대덕구는 지난 3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지역민들을 섬겨온 황소처럼 우직한 봉사 단체 '새여울리더스클럽 (회장 안부균 · 사진)'이 있다.

새여울리더스클럽은 대덕구 신탄진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다.

신탄진권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 청년들이 지난 1988년 1월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후 3월에 36명의 회원으로 '신탄진청년번영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다가 지난 2008년 현재의 이름인 '새여울리더스클럽'으로 바꿨다고 한다.

한자로 표기된 지명 新灘津(신탄진)을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새로 형성된 여울목, 즉 '새여울'로 불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0여명의 자문위원 · 30여명 회원... 체계적 조직 운영

청소년 가요축제 · 애향수련회 등 아동 · 청소년 프로그램 심혈

안부균 회장 "봉사는 작은 관심과

실천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

이 단체에서 20년간 활동 중인 안 회장은 "도시의 발전으로 이주민들이 점차 늘면서 이분들 또한 이웃이자 사회의 든든한 일꾼들이기에 문호를 개방했다"라며 "문호를 개방이 서로 화합하며 신탄진을 대표하는 봉사 단체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초대 회장인 여운상 전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현 안부균 회장까지 총 27명의 회장이 이 단체를 이끌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까지 50세를 기준으로 '전역 제도'가 있었으며, 전역하신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지금도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현재 40여명의 자문위원과 30~50대 회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새여울리더스클럽'은 35년이라는 역사가 증명하듯 총무, 재무, 문화, 회원, 사회봉사 분과 등 체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출범 초창기에는 신탄진연초제조창(현 KT&G공장)이 이 지역에 있음을 감안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산 담배 불매운동을 펼친 것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공해 유발업체 3~4공단 입주 반대 운동 등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또, 지난 1991년부터 25년 동안 지역의 어린이들의 리더십 배양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애향수련회' 개최, KT&G 일원



벚꽃을 활용한 축제 개발 및 개최, 청소년 장학금 지급, 소외계층 대상 연탄 및 쌀 나눔 행사 개최 등 그야말로 신탄진지역 구석구석 이 단체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새여울리더스클럽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바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다. 지난 2011년 신탄진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가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져 현재는 대전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안 회장은 "어린이,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며 "코로나 19로 멈췄던 축제를 3년 만에 재개, 10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 애향수련회 프로그램 부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여울리더스클럽 가족들은 봉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행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봉사는 실천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진다고 게 이들의 굳건한 믿음이다.

안부균 회장은 "한 알의 모래가 모여 산을 이루듯이 자문위원과 회원 한분 한분이 모아주신 마음은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지역민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주민 행복 추구권 보장하라”

성명 통해 사측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촉구
주민 건강·경제권 등 보장 위한 노력도 요구



대덕구의회는 지난 4월3일 “한국타이어 근로자와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고 한국타이어 사측에 요구했다.

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타이어 모든 근로자의 고용 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와 인근 소상공인, 주민들의 건강권, 경제권, 행복 추구권 보장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 사측에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홍태 의장은 “한국타이어 임직원을 비롯해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의 피해 호소가 적지 않다”면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지난 3월12일 오후 10시 9분쯤 화재가 발생해 2공장이 전소되는 등 타이어 21만 개가 탔다.



▲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4월 8일 대청공원에서 열린 '2023 대덕물빛축제'에 참여해 축제를 즐기고 있다.



대덕구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앞장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대표위원 양영자...세입·세출 등 심사



▲ 4월 6일 대덕구의회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4월6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위원을 맡은 양영자 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 전문가인 여양구 회계사, 박재수·한용수 세무사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됐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에 대해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했다.

양영자 대표위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 전문가들과 최선을 다했다”면서 “누수 없는 예산 운용을 도모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목! 이 조례



조대웅 의원

조대웅 의원, 뷰티산업 육성 등 3개 조례안 발의

-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게 고민”

조대웅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지역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뷰티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조 의원은 지역 미용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뷰티산업 현황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대덕구 경찰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의원 개인의 성과보다는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만들 때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규 의원,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식생활 교육환경 조성 목적

이준규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등에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내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달 현재 지역에는 사립유치원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현상에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간식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준규 의원

사서의 소소한 책 꾸러미 ‘사소한 책’

5월 주제

부모는 처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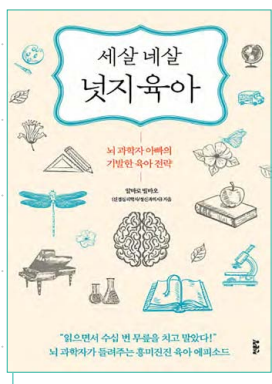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내 자녀!
육아 고충과 청소년 이해에 도움이 될 책들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육아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예요.”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는 ‘본질육아법’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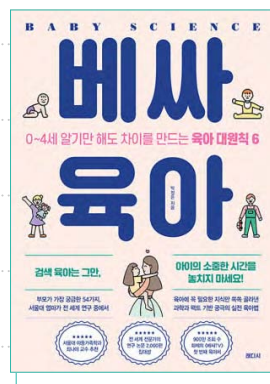
세 살 네 살 넋지육아

뇌 과학자 아빠가 들려주는 흥미진진 육아 에피소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교육적인 독서이며, 에피소드가 이야기식이라 매우 즐겁고 무척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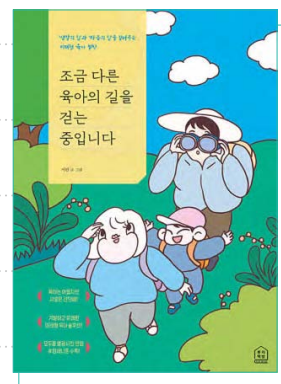
어른을 위한 청소년의 세계

급격한 마음 세계의 변화로 종종 주변과 불화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선부른 조언이나 위로, 평가나 판단이 아닌 믿어주는 마음과 공감 대화입니다.



베싸육아

0~4세 육아 원칙과 방향을 잡으면 육아가 쉬워진다. 초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필독서로 수유, 식사, 수면, 책육아와 놀이의 원리, 생애와 거부 대처법, 발달과 훈육을 한 권에 담았다.



조금 다른 육아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생각의 힘’과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미래형 육아 철학. 창의력, 사고력, 공감력, 표현력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힘세니를 키운 엄마가 말해주는 조금 특별한 육아서.

* ‘사소한책’은 대덕구 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주제를 선정해 관련도서를 추천합니다.



대덕구 독서문화행사 ‘백세계 독서하기’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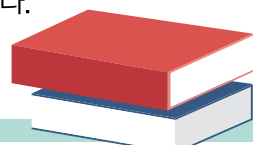
‘2023 대덕물빛축제’ 연계... 책 300여권 독서·나태주 시인 특강 등 호평



대덕구의 이색 독서문화행사 ‘2023 백세계 독서하기’ 행사가 호평 속에 마무리 됐다. ‘2023 대덕물빛축제’ 연계 행사로 진행된 이번 ‘2023 백세계 독서하기’ 행사는 지난 4월 15일 ‘봄날의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사전 신청한 40팀 150여명과 탁 트인 잔디밭에 텐트와 돛자리를 펴고 도서관 책 300권 중 원하는 책을 골라 읽는 시간을 가졌으며, 3인 3색 주제별 강연과 함께 비눗방울, 연날리기, 보드게임,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나태주 시인의 특강과 감성 밴드 1253밴드의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으며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문의: 대덕구 교통과(☎608-5294)